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요인

김 혜 금(동남보건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변인(영아의 성, 영아의 연령, 영아의 출생 순위, 자녀에 대한 가치, 어머니의 자존감,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배우자의 자녀 지지, 사회적 지지)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적극적이고 지지적인 어머니 양육태도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09 아동 패널의 11개월에서 18개월 영아를 둔 593명의 취업모와 1,287명의 비취업모이었다. 본 연구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09 아동 패널에서 이용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녀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는 이 삼식 외(2005)의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89)의 도구로 총 10개 문항이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측정하는 도구는 강희경(1998)이 사용한 도구로 총 4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부부갈등척도는 Markman, Stanley 와 Blumberg(1994)의 척도이며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는 이재림과 옥선화(2002) 그리고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총 12개 문항이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도구로 총 10개 문항이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적 통계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자존감($t=6.17, p<.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t=3.03, p<.01$), 그리고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t=2.53, p<.05$)의 점수가 비취업모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비취업모의 평균 점수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t=-3.89, p<.001$). 둘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가치($r=-.25, p<.001$), 자존감($r=-.49, p<.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r=-.20, p<.001$), 결혼 만족도($r=-.30, p<.001$), 부부 갈등($r=.39, p<.001$), 사회적 지지($r=-.24, p<.001$)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가치($r=-.25, p<.001$), 자존감($r=-.52, p<.001$), 배우자의 양육 지원($r=-.22, p<.001$), 결혼 만족도($r=-.29, p<.001$), 부부 갈등($r=.42, p<.001$), 사회적 지지($r=-.30, p<.001$)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beta=-.37, p<.001$), 부부 갈등($\beta=.19, p<.001$), 자녀에 대한 기대($\beta=-.12, p<.01$) 예측요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서의 변량의 31%를 설명해주었다. 자존감($\beta=-.37, p<.001$), 부부 갈등($\beta=.22, p<.001$), 자녀에 대한 기대($\beta=-.11, p<.01$) 예측요인이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서의 변량의 32%를 설명해주었다.

본 연구결과, 취업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존감을 높이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를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모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은 어머니의 자신의 자존감을 증진하고 남편의 양육참여도와 사회적 지지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